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꽃향기 가득한 마을 만들기

박동수 기자 ehdt9100@ksmnews.co.kr © 입력 2025/05/27 19:20

0



[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는 지난 26일 서후면 대두서리 마을에서 직원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산어촌 행복충전활동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 날 활동은 아름다운 농촌 환경을 조성하여 농촌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서후면 대두서리 생명의 쉼터에 채송화 150주를 식재하고 주변 환경정화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했으며, 주민들과 함께 환경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에 마을 이장님과 주민들은 마을 공간이 꽃으로 아름답게 바뀐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수고한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승표 안동지사장은 "이번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행사로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公社가 앞장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